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EBS 다큐프라임-인도의 얼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가치관과 비합리적인 사회상이 공존하는 인도, 너무도 많은 오해와 선입견, 편견으로 가득한 인도라는 공간에서 그 근원이 되는 인도의 문명과 종교,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 연 출 : 김영상, 채수영

| 방송일시 : 2009년 2월 23일(월)~25일(수), 3월 2일(월)~4일(수) 밤 9시 50분~10시 40분, 6부작



[영원의 땅, 카슈미르]

카슈미르에서 피어나는 희망

한국 방송 사상 최초 취재

EBS [다큐프라임] 카슈미르 분쟁지역으로 가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의 전원지, 인도 근현대사의 축소판 카슈미르는 우리가 상상하는 인도와 많이 다르다. 오랜 내전과 분쟁에 지친 땅, 카슈미르. 그곳의 자연경관만큼은 인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아름답다.

해발 4,500미터의 카슈미르 산간지역, 그리고 카슈미르의 주도 달레이크를 중심으로 신비한 비경과 자연에 기대어 정직하게 살아온 카슈미르 사람들의 소박한 삶과 희망을 담았다.

[힌두의 눈물, 여성]

인도 여성에게 인권이란 있는가?

가족과 사회의 짐, 인도 여성

지금, 변화를 모색하는 그녀들을 만나본다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여아낙태율과 조혼율이 높은 인도.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부담해야 하는 딸은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부담스런 존재다. 그러나 한편에선 대학에 진학하고 연애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이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 인도여성. 2009년,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인도 여성들을 만난다.

[경계를 떠도는 방랑자, 타르 사막의 라바리]

뜨겁고 낮선 땅, 7백년 전설 속을 넘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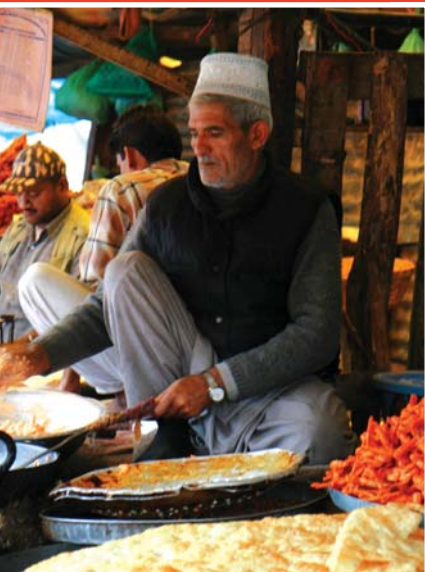
검은 옷의 비밀, 라바리 여인의 이야기

낙타에 짐을 싣고, 양떼를 몰며

인도 타르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라바리

7백년 전설 속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라바리 여인들이 이 검은 옷을 입는 유래를 통해 사막 위에서 펼쳐진 라바리 사람들의 문화를 살핀다.

India



● [살아있는 중세, 라자스탄의 대장장이]

현대와 중세를 잇는 대장장이, 로하르
인도 집시의 거친 삶을 옛보다
정착된 삶을 거부한 채 도시에서 농촌으로
떠도는 로하르 가족

그들이 대장장이 생활을 하며, 집시의 삶을 선택한 것은 5
가지 명세 때문이다.

전사들의 땅 라지스탄의 5백년 전 역사를 따라가 보며, 중
세적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현재를 만난다.

● [카스트, 굴레를 넘어서]

3천년의 굴레, 인도인의 뿌리
전통과 관습을 넘어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진정한 카스트의 모습을 만나다

역사책에 기록된 4개의 카스트에 얽매인 인도는 거기에
없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카스트와 그 의무를 완벽히 잊
지는 않았다. 그저 지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위해 땀을 흘리는 평범한 아버지와 가
난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있었
다. 오래된 편견을 벗겨낸 진짜 인도를 만난다.

● [소리가 만든 모자이크, 콜카타 이야기]

전통과 현대의 공존, 소리와 속도의 이질감
다양한 소리의 모습을 통해
콜카타 사람들의 삶을 들어본다
3백년의 역사를 가진 인도 제2의 도시 콜카타

영국이 식민 약탈을 위해 갠지스 평원에 세운 계획도시이
자 이주민들의 땅으로, 인도의 유구한 역사의 흔적이 보이
지 않는 거의 유일한 도시이다. 과거와 현재가 아슬아슬하
게 공존하는 가운데 도시에서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인력거, 전통 음악가 등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도시의 소리를 통해 관찰한다.

자료제공 : EBS 지식정보팀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人의 표정에서 인도의 진실된 삶을 보았다

2월 23일부터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인도의 얼굴]은 인도인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저급한 우월의식을 타파하고, 지엽적 학문을 통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접근하던 시각을 탈피하자는 생각으로 제작됐다.

편견으로 점철된 인식을 가진 대상을 상대로 새로운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라. 웬지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눈, 코, 입은 있지만 그 생김새는 모두 다르고, 다른 생김새에 감정이 실려 희노애락의 표정이 나타나 듯이 같은 것을 가졌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다고 표현하지는 말아야지 않겠는가. 도공이 잘못 만들어진 자기를 시퍼런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쳐 부수듯이 머리를 비우고 인도인의 얼굴을 보자.

아직도 노란 카레와 진한 강황향이 입가를 떠나지 않은 표정이다. 다양한 카레를 먹으며 인도에서 인도인의 살아있는 표정을 담아 온 두 사람에게 [인도의 얼굴] 제작기를 들어보자.

인도(인도인)를 선택한 이유

김영상 : (웃음) 나도 궁금하네

채수영 : (웃음) 2008년 2월에 기획안을 공모했는데 그 당시 2007년 말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영어교육붐'이라든지, '경제대국으로서 중국 다음에 인도'라는 내용의 방송들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인도관련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인도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인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고, 주로 다뤄진 내용이 캔지스강, 붓다, 음식 등 문명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인도 이야기에 인도인이 중심이 된 이야기는 없었다. 그래서 인도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인도인을 선택했다. 인도인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람이 담겨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다큐멘터리의 구성

김영상 : 기존에 우리에게 비춰진 인도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했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요구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카스트 제도다. 카스트 제도를 접근하면서 인도인의 일상에서 삶을 접근해 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요약된 인도를 보고 있다. 선입견과 오해를 깨뜨리고 인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주제들로 접근했다.

[인도의 얼굴]은 [영원의 땅, 카슈미르], [힌두의 눈물, 여성], [경계를 떠도는 방랑자, 타르 사막의 라바리], [살아있는 중세, 라자스탄의 대장장이], [카스트, 굴레를 넘어서], [소리가 만든 모자이크, 콜카타 이야기]까지 6부로 구성했다.

채수영 : 인도라고 하면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인구의 6명 중 1명이 인도인이다. 중국 다음으로 인도인이 많은데 인도인을 이해하지 않고서 국가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들의 문명, 생각,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인도의 종교분쟁

김영상 : 아무 일 없이 잘 산다. 어느 나라를 가던 정치를 중요시 하는 세력이 있다. 여기도 정치적인 것에 집중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정치에 종교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현지 신문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테러와 관련된 기사가 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

채수영 : 인도는 힌두교가 83%, 이슬람교가 11% 정도 된다.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고 이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다. 이 지역에서 무슬림 건축가를 만났다. 그가 하는 얘기가 힌두 사원을 본인이 지었는데, 지금은 옆의 별관 사원도 맡아서 짓고 있단다. 힌두 사원을 짓는 일인데도 무슬림이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소수의 정권이 정권의 교체나 명예에 대한 욕구로 인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채수영 PD(왼쪽), 김영상 PD

인도인의 갠지스강

채수영 : 우리에게 강이지만 그들에게는 강이 아니다. 다음 생으로 가기위한 지름길이며, 영생이다. 강이 아니라 성수와 같은 개념이다. 성수라는 자체로 이들에게는 중요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선 다양한 축제들도 진행되고, 일상적인 삶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카스트 제도

채수영 :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없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계급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누는데, 여기서 느낀 것은 브라만과 수드라는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 계급인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는 모두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는 깊게 뿌리 박혀 있다.

인도의 여성

채수영 : 여성. 경전 중에 “딸은 최대의 불행이다”라는 말이 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 결혼 풍습에 여성들이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바울이 있는데, 결혼식에 들어가는 남편 쪽과 여자 쪽의 비용을 모두 여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취재한 남자도 딸을 결혼시키는데 5년간 모은 돈에다 대출받고 빚까지 내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딸이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성별을 감별하고 딸이면 낙태를 시킨다. 심지어 모르고 낳았는데 딸이면 버리기도 한다. 여성에게 인도는 참 살기 힘든 나라다.

여성 촬영의 어려움

채수영 : 현지 코디부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낯선 남자가 옆으로 다가가면 여자들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촬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안 될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자 여자들이 나타나고 얼굴도 보이며 자연스럽게 촬영을 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촬영은 아니었다.

인도의 유목민

김영상 : 인도는 여러 부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부족들의 삶을 통해 인도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과 그들만이 갖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다양성을 통해 우리가 보아 온 시각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인도의 유목민은 7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힘들다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돈도 안되고, 야생의 삶에다, 아이들 교육환경도 좋지 않은데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떼를 몰며 넓은 벌판에서 잠들며, 그들만이 지녀 온 풍습이 있었다. 그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중세문화와 공존

김영상 : 인도는 IT나 군사시설, 치안 등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6~70년대 생활수준이다. 옷을 착용하는 스타일도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듯이 여기서는 아직도 전통의상을 착용한다. 가장 먼 과거와 가장 최신의 현재를 함께 아우르는 공존의 공간인 것이다. 유목민을 만났을 때도, 라지스탄의 대장장이를 취재했을 때도 중세의 문화를 간직한 곳이며,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목생활을 하고 망치로 쇠를 주무르는 대장장이도 통화는 휴대폰으로 한다(웃음).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공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의 음식과 손

채수영 : 카레밖에 없다(웃음). 그래서 카레를 먹어야 하는데 대신 종류가 많다. 인도인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간 카레가 많다. 한 달만 살면 아주 건강해진대(웃음). 또, 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김영상 : 카레를 먹을 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려야지 잘 뭉치고, 밥알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배여서 맛있다. 비빔밥처럼 다양하게 넣어서 먹는 것도 있고 입에도 맞는다. 손으로 먹어 아직 맛있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와 현실

김영상 : 영화에서 의상을 보면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등 아주 화려하고 원색이 강하게 나오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도 화려한 색상들을 좋아하고 즐겨 입는다. 특히, 주황색은 브라만의 색이라고 생각해서 옷감에 많이 사용한다.

채수영 : 우리가 접하는 인도영화는 인도가 아닌 곳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곡되는 것도 있으니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도의 거리도 우리나라의 거리처럼 각양각색

India



의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온다. 인도의 연령분포를 보면, 10~20대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영화, 화려한 음악과 패션 등에 집중 되는 것이 당연하다.

촬영 중 힘든 점

채수영 : 첫 촬영지가 카슈미르였다. 카슈미르는 파키스탄과의 분쟁으로 거리 곳곳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많다. 평상시에 도착해서 본 카슈미르는 상업적이고 사람들의 이동도 많은 지역이었다. 군인들이 있을 뿐 평범한 지역으로 생각했는데 테러가 감지되던 블랙데이였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당황스러웠다.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이런 날 잘못 나왔다가는 돌에 맞기도 하고 군인에게 잡혀가기도 한다. 그러니 위험한데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촬영도 할 수 없었다. 또, 이 지역이 해발 4,500미터의 고산지대라 춥다. 스태프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내복부터 점퍼까지 여러 겹으로 옷을 지냈는데 촬영을 마치고, 바라나시라는 따뜻한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니 모든 스태프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 때문에 3일간을 모든 스태프들이 고생을 했다.

촬영 중 에피소드

김영상 :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면 5분도 안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외국인들도 자주 보고 카메라가 있으니 방송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카메라를 들이밀면 카메라를 향해 준비된 자세를 취해준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아야 하는데 준비된 자세와 표정들을 보여주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계속 촬영을 하다보면 그들의 표정이 '맑다' 라는 느낌이 든다. 짙은 눈썹에 검은 눈동자, 깊은 눈을 가졌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짓는다. 세계 4대 상인 중에 제일 독한 것이 인도상인이라는데 만남을 가져보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준비 기간의 인도와 촬영 후의 인도

김영상 : 기존에 인도에 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짧고 얕았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편견을 버리고 본다는 것이 중요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일이 아닌 여행자로 다시 가고 싶다(웃음). 더 자유롭게 그들을 느끼고 싶다.

채수영 : 가기 전에 자료들을 보면서 신의 나라, 종교의 나라, 인도인은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현지촬영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인도를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이해해 버린 것이다. 그곳에는 종교와 문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